

“힘만 들었고 불행했다”

3월15일 회사를 떠나는 박정찬 사장이 사보 편집팀과 인터뷰를 갖고 불명에 중도퇴진의 소감을 밝혔다.

박 사장은“파업 후유증을 하루빨리 극복하고 회사 분위기를 일신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임기 중 사임을 결심했다”며“지난해 노조의‘103일 파업’이 같은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게 하는 소중한 경험으로 남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박 사장은 이어“지난 35년간 힘들기도 했지만 연합뉴스를 위해 일할 수 있어

행복했다”며 “뉴스통신은 국민의 민심을 최대 공약수로 표출하면서, 진보나 보수 매체들이 취급하는 소재까지 최소 공배수로 다룰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노조는 불명에퇴진하는 순간까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박 사장의 모습에 충격을 받은 조합원들을 위해 잃어버린 4년을 평가하기로 했다. 박 사장의 궤변에 대한 노조의 응답이자, 새 사장에 대한 경고의 의미도 있다.

다음은 노조와 일문일답.

--박사장이 지난해 연임하고 1년만에 사임하기로 한 배경은.

▲최근 박 사장은 “파업 후유증을 수습하고 조직 분위기를 일신시키지 않으면 연합이 나아가는데 큰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해 사임을 결심했다”며 마치 스스로 큰 결단이나 내린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기가 막힐 뿐이다.

그는 지난해 6월22일 당시 공병설 노조위원장과의 회동에서 “회사 구성원 다수의 뜻을 잘 안다. 그 뜻을 존중해 내가 판단하겠다”며 사퇴의사를 밝혔다.

다시 말하면 박 사장의 중도사퇴는 파업해제의 조건이었다.

군사독재의 전환점이 된 1987년 개헌이 전두환의 용단인가? 아니다. 수많은 시민들이 피를 흘린 민주항쟁의 결과다.

박 사장의 중도퇴진도 마찬가지다. 스스로 결단한 것이 아니다. 밀려난 것 뿐이다.

노조와 연합뉴스 구성원이 끊임없이 박 사장을 압박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장담할 수 없다.

--박 사장 재임 중 보람을 느꼈던 일과 아쉬웠던 일은.

일은.

▲힘만 들었고, 불행했다. 굳이 보람을 느낀 일을 찾아본다면 연합뉴스를 바로세우기 위한 103일간의 파업이다.

아쉬웠던 것은 지난 4년이란 기간이다. 공정성 훼손으로 뉴스콘텐츠의 경쟁력이 훼손됐고, 지연(地緣)과 학연(學緣)에 따라 주요보직을 결정하면서 조직이 멍들었다. 한마디로 ‘잃어버린 4년’이다.

--‘103일 노조파업’이 적지 않은 후유증을 남겼다. 치유방안을 제시한다면

▲연합뉴스 사원들이 23년만에 파업을 한 원인부터 살펴봐야 한다.

일단 박 사장 재임시절 경영진뿐 아니라 당시 편집국장 등 일선간부들까지 언론의 생명인 공정성 훼손에 앞장섰던 것이 결정적 원인으로 꼽힌다. 그렇다면 공정성 회복을 최고의 가치로 삼아야 한다.

기자의 영혼을 팔고 정치권을 향해 꼬리를 치는 작태가 조직 내에서 당연시되고, 오히려 권장되는 비극이 반복된다면 노조는 103일보다 더 긴 파업이라도 마다하지 않겠다.

이와 함께 조직내 인사도 정상화돼야 한다. 인사는 만사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박 사장은 인사로 회



사를 망쳤다. 무능한 자들이 특정 학교, 특정 지역 출신이란 이유로 주요 보직을 꿰찼다. 이 때문에 뉴스콘텐츠의 질이 저하됐고, 조직 내 냉소주의만 확산됐다.

<2면에 계속>

연합뉴스 노보 2013년 3월호

박정찬사장 중도 퇴진에 대한 노조 인터뷰 | 1면

시사상식 업무상 배임죄란? | 2면

‘변명의 달인’박정찬, 국회 질타에“....” | 3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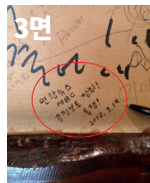
호프집 글귀 주인공은 차지연 | 3면

‘황당’박사장 말말말 | 3면

사내동정 | 4면

양손 당수의‘명인’박정찬 | 4면

“불도저같은 카리스마와 썰렁유머의 소유자, 이젠 안녕” | 4면



<1면에 이어>

연합뉴스가 제대로 된 조직으로 거듭나려면 박사와 함께, 혹은 박 사장의 지시를 받고 통신의 공정성을 훼손해 파업을 유발했던 자들에게 분명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완장을 차고 연합뉴스를 망쳐놓은 뒤 자회사로 자리를 옮긴 박 사장 잔당세력에도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박정찬 잔재청산’은 연합뉴스 새출발의 전제조건이기 때문이다.

--파업 당시 노조의 주요 요구사항 중 하나가 공정 보도 확립이었는데

▲박 사장은 “파업 때는 마치 내가 불공정 보도의

주범이거나 배후인 것처럼 비난을 받았다. 오해를 받은 부분도 없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스스로 불공정 보도의 주범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억울하다는 뉘앙스도 느껴진다.

한마디로 적반하장이다.

한명숙 전 총리 공판기사, 낮뜨거운 이명박 임기반 환점 특집기사, 이명박이 조찬기도회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한 사진의 송고 지연, 일방적인 4대강 특집기사, 청와대 해명을 그대로 전한 내곡동 사저 기사 등 불공정보도는 셀 수 없을 정도다.

물론 박 사장 본인이 직접 지시하지 않은 사안이 섞여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런 불공정 보도가 자행된 배경엔 박 사장이 있었다. 정권에 불편한 기사에 대해선 사장 눈치부터 보는 문화가 박 사장 재임기간

급속히 확산됐기 때문이다.

낮뜨거운 포항 향우회 행사에 기자를 급파하고, 고교 동문 범법자의 특별면회를 지시하는 등 무수하게 많은 물의를 일으킨 장본인이 무슨 염치에서 공정보도를 입에 올리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퇴임후 계획은

▲박 사장은 “당장은 구체적일게 없다”며 “선후배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지내려고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할 일이 없다면 자신이 얼마나 연합뉴스를 망쳐놓았는지부터 반성하는 것이 옳다.

연우회 회원으로 활동하는 것을 말할 수는 없겠지만, 회사 주변을 기웃거리다면 용납하지 않겠다.

박정찬의 ‘치적’ 뉴스Y “대수술 시급”

박정찬 사장이 자신의 주요 치적으로 내세우는 것은 보도채널 뉴스Y의 출범이다.

박 사장은 연합뉴스와 뉴스Y가 시너지 효과를 내야 한다면서 연합뉴스의 유무형 자산을 뉴스Y에 퍼부었다.

노조의 거듭된 우려와 경고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방송사업을 추진했고, 이에 조금이라도 쓴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반역자’로 겁박하는 바람에 사내에선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

심지어 일부 간부는 물 만난듯 박 사장에 동조해 ‘방송교도’라는 웃지 못할 신조어가 생길 정도였다.

박 사장은 사보와 인터뷰에서 뉴스Y에 대해 “상당히 안착됐다. 연합뉴스 사원들이 적극 협조하면 충분히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강변했다.

하지만 박 사장이 떠난 뒤 남은 연합뉴스 구성원이 져야할 짐은 무겁기만 하다.

뉴스Y가 광고수익으로 운영돼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뉴스Y가 손익분기점을 맞추려면 지난해를 기준으로 매출 증가율이 60%에 달해야 한다.

대외 경기 상황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관련부서의 노력에도 이런 매출 증가율은 현실적으로 기

대하기 어렵다.

이런 재정부담은 고스란히 모회사인 연합뉴스가 떠안고 가야 한다.

무엇보다도 뉴스Y에 동원되느라 회사의 핵심 역량인 통신 경쟁력이 훼손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시너지 효과란 이해당사자가 모두 더 큰 이익을 본다는 뜻인데 이익은 커녕 연합뉴스는 제살을 깎아 먹고 있는 셈이다.

박 사장은 이런 지적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무책임한 대답을 하고 떠났다.

특히 연합뉴스가 차별된 경쟁력이 있다고 자부하는 지역과 특파원의 기사가 방송 업무때문에 지연되고 있다.

새 경영진은 연합뉴스와 뉴스Y의 얽히고설킨 관계와 뉴스Y의 경영문제뿐 아니라 뉴스Y의 설립과정도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한다.

벌써부터 “검증 안된 부실한 장비를 들여왔다” “방송 비전문가인 연합뉴스가 바가지로 쓰고 도입한 장비가 있다”는 등의 제보가 노조에 들린다.

실제로 뉴스Y의 주요 장비가 갑자기 멈추거나 자



료화면이 유실되는 등 사고가 빈발하고 있지만 책임지는 사람은 없다.

새 경영진은 뉴스Y의 대주주로서 설립과정, 장비 도입 계약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철저히 감사를 해야한다. 이것이 뉴스Y의 튼튼한 토대를 만드는 시작이다.

‘대수술’이 더 늦으면 뉴스Y는 물론 연합뉴스도 무사하기 어렵다.

시사상식

Q) 업무상 배임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A) 최근 사내에서 업무상 배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업무상배임은 ‘업무상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356조 2항)입니다.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란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뜻합니다.

배임죄와 관련해 언론계에서 유명한 사례로는 정연주 전 KBS 사장을 들 수 있습니다. 정 전 사장은 KBS 직원에 의해 배임죄 혐의로 형사고발 됐습니다.

정 사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연임에 성공했지만,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 배임 의혹에 시달렸습니다.

지난 2005년 KBS가 국세청을 상대로 수년간 벌여온 법인세 부과 취소 소송에서 승소가 예상됨에도 조정 권고를 받아들여 556억원을 환급받고 소송을 취하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이에 뉴라이트전국연합 등 보수단체들은 KBS에 대한 감사원의 특별 감사를 청구했고, KBS의 한 직원은 법인세 환급소송 취하와 관련 배임 의혹을 제기하며 정 사장을 형사고발했습니다.

감사원은 정 전 사장에 대한 해임을 요구했고, 검찰은 정 전 사장이 KBS에 1천892억원의 손실을 냈다면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정 전사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KBS에 더 유리한 내용으로 조정안을 관철하지 못한 것이 배임에 해당한다는 것이 검찰의 논리였습니다.

정 전 사장은 해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 지난해 대법원으로부터 배임에 대한 무죄확정 판결을 4년만에 받았습니다.

한국의 사법체계에서 배임행위는 이처럼 경영자의 경영행위나 판단에 상당히 광범위하게 적용돼 기소까지 이를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변명의 달인’ 박정찬, 국회 질타에 “...”

최재천 의원 “못된 정치적 표현만 능수능란하게 구사”

공정성 훼손과 학연·지연 인사 등 명백한 잘못도 인정치 않고 이해하기 힘든 변명으로 일관했던 박정찬 사장.

연합뉴스 사원들의 비판엔 꿈쩍도 않던 그였지만, 사장이라는 권위에 기대지 못하는 자리에선 초라한 궤변가에 불과했다.

지난해 10월22일 국회 문방위의 연합뉴스 비공개 업무보고 때 보여준 모습이었다.

파업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강공에 박 사장은 동문서답과 궤변을 교묘하게 뒤섞어가면서 방어를 시도했다.

파업의 원인을 묻는 질문에 대해 “부덕의 소치다”라고 답하더니, 언론계에서 연합뉴스의 공정성 훼손여론이 확산되고 있다는 추궁엔 “구성원들이 스스로 공정하지 못하다 외치는 마당에...(외부 평판이 나빠지는 건 당연하다)”라며 사원 책임론을 들고 나왔다.

또 “공정성은 최고의 가치로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과 비슷하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모자란다”, “내 책임기간 부당한 보도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만, 연합뉴스가 (과거에 비해) 급속하게 변화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는 여야 양쪽에서 서로 공정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듣는다”고 강변하기도 했다.

연합뉴스의 오보 책임을 묻는 질문에 대해선 “쓰는 기자와 편집인 문제다. 사장이 일일이 오보내라고 하진 않는다”고 남탕을 했고, 사내에서 웃음거리가 된 ‘사장님 사규’ 문제에 대해선 “(누가 그런 사규를 만들었는지) 나도 물어보고 싶다”라고 되받아

쳤다.

불명예퇴진 시점까지 반복되고 있는 박 사장의 궤변은 이때부터 시작된 것이다.

박 사장의 아전인수와 변명이 도를 넘었다고 생각했는지, 의원들의 반격이 시작됐다.

이 중 가장 눈에 띄는 활약을 보인 사람은 각종인사청문회에서 ‘영혼탈곡기’로 알려진 민주당 최재천 의원이었다.

최 의원은 파업 책임론에 “부덕의 소치”라고 답변한 박사장이 공정보도 훼손 책임론에 대해서도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처럼 아무리 열심히 해도 부족하다”라는 논리를 내세우자 “사용하는 말이 지나치게 정치적이다. 어떻게 그런 못된 정치적 표현만 능수능란하게 구사하나”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연합뉴스는 지금 내부 구성원과 외부로부터 극단적인 비판을 받고 있는 암울한 현실이다. 그런데 사장은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제 불찰, 잘 될 것이다 등의 정치적 발언만 늘어놓는다”고도 했다.

이와 함께 그는 박 사장이 ‘사장님 사규’에 대해 남의 탓을 한데 대해서도 “최종결재권자가 사장인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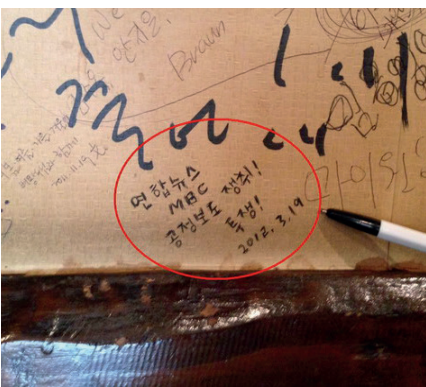
왜 남에게 전가하나”고 따졌다.

이에 대해 박 사장은 “진심이다. 정치적 발언이 아니다”라고 변명을 시도했지만 최 의원은 “입으로만 내탕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성직자나 하는 이야기”라며 “진심이라면 책임지고 물러나라”라고 따졌다.

핵심을 정확하게 짚어나가는 최 의원의 질의에 대해 박 사장은 아무런 답변도 내놓지 못했다.

일각에선 파업이 끝난 뒤에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계속됐던 박 사장의 오만이 이날 국회 문방위 비공개 업무보고를 계기로 꺾이게 됐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호프집 글귀 주인공은 차지연



노조가 우연히 발견해 게시판을 통해 주인을 찾았던 ‘파업 투쟁’ 글귀의 주인공은 차지연(사회부) 조합원으로 밝혀졌다.

차 조합원은 12일 메일을 통해 “세종문화회관 뒷쪽 2층인데 취중에 아무데나 들어간 곳이라 상호(정답은 ‘봄’)는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면서도 당시 이 글을 찍어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을 증거자료로 보내왔다.

작년 3월19일 밤 김효정(국제부) 조합원, MBC 조합원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 벽에 글을 썼다고 한다.

차 조합원은 민망하고 썩스럽다며 신원을 공개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

차 조합원은 문자메시지를 통해 “김효정 선배와 상품권을 나눠갖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아직도 “나는 연합짜라시가 아닌 연합뉴스에 다닌다”는 차 조합원의 외침이 생생하다.

‘황당’ 박사장 말말말

- 구호 세 번 외치고 헤어져라(출근저지 첫날 조합원을 향해)
- 두시간 반동안 참고 있었더니 오줌이 마렵다(잇따른 성명발표로 마련된 사원과 대화에서)
- 밖에서는 나를 바보라고 한다(파업에 대해 최대한 참고 있다며)
- 제가 떠날 때라고 생각하면 아무리 붙잡아도 떠나겠다(총파업 결의 총회에 불쑥 참석해)
- 몇 시에 다시 올까(출근저지하는 조합원을 향해)
- 연합뉴스 인사를 방송기준으로 하겠다. 통신경쟁력이 약화되는 것은 불가피하다(뉴스와이를 일방적으로 밀어 붙이면서)
- 언론은 정치권력, 자본권력과 같이 갈 수밖에 없다(뉴스와이 광고주 초청설명회에서)
- 파업 징계가 아픔일 수 있지만 훈장일 수도 있다(국정감사에서 파업 징계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의원에게)
- 파업징계자도 전부 같은 대학출신이다(국정감사에서 뉴스통신진흥회가 사장과 같은 대학 일색이라는 지적에)
- 로버트 프로스트의 시‘눈오는날 숲가에 서서’라도 읽으면서...(2010년 송년메시지)

사/내/동/정

3월

중도퇴사

▲사장박정찬
2013. 3.15.자


양손 당수의 '명인' 박정찬

7층 사장실 앞에서 종일 출근저지 투쟁이 한창이었던 지난해 5월25일 아침. 박정찬사장의 돌발행동에 사내가 술렁인 사건이 벌어졌다. 사장실로 향하는 자동문 앞에 스크럼을 짜고 있던 조합원들을 향해 박사장의 일격이 날아온 것. 박사장은 마치 성난 들소처럼 스크럼 맨 앞줄 조합원의 팔을 온 힘을 다해 흔들더니 틈을 비집기 시작했다. 박사장의 돌진은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 평소엔 출근저지 대오를 보고서 아무일 아닌 듯 3초만에 돌아갔던 그는 이날 작심했는지 물리적 충돌을 감행했기 때문이다. 박사장의 돌진에 순간 당황했지만 스크럼은 더욱

견고해졌다. 이 혼전 속에서 조성흠 조합원의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쏟아졌고 박사장에게 팔을 잡힌 최찬홍 조합원은 찰과상을 입었다. “뭐야 이거. 이러면 안되지. 내가 내방에 들어가겠다는 데 이게 뭔지야!” “폭력을 쓰지 말아달라”는 조합원의 외침에 박사장은 “폭력? 이게 폭력이라고?”라며 소리를 질렀다. 박사장은 “내방에 들어가고 나서 딱지를 치든지 말든지 맘대로 해”라고 짜증을 내기도 했다. 박사장은 이틀전 사장실 앞에서 벌어진 ‘공정보도 딱지치기’에 상당히 불만이 있었다고 한다. 뜻대로 스크럼이 뚫리지 않자 박사장의 숨겨진 무예가 펼쳐졌다. 양손을 높이 쳐들더니 조합원의 팔을 향해 전광석화같은 당수(손날로 치기)공격 신공을 선보였다. 이어 관절기(손가락 꺾기)가 연속기술로 들어갔다. 하마터면 견고했던 출근저지

대오가 붕괴할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다. 박사장의 당수와 관절기는 유튜브를 통해 전세계로 전파되기도 했다. 박사장의 돌발행동은 이에 그치지 않았다. 회심의 공격이 통하지 않자 노조 사무실로 직행해 2시간동안 ‘항의 농성’을 했다. 박사장은 “양정우 특파원을 보복인사한 것은 대화의 판을 깨려는 속셈”이라는 노조의 지적에 “그렇게 생각하면 ‘아니 아니 아니돼오’야”라는 개론 유행어로 맞서 노조를 황당케 했다. 파업특보는 이날 사건을 “박정찬의 민낯이 드러났다”고 기록했다.



 이별기
연합뉴스 노조원 사우(박정찬씨 파트너)

“불도저 같은 카리스마와 썰렁유머의 소유자, 이젠 안녕”

어언 4년 전이군요. 아니, 그를 알고 지낸 건 그보다 훨씬 전부터네요. 2009년 이전의 그는 그냥 평범한 ‘경상도 남자’ 같았습니다. 간혹 사석에서 후배들에게 던지는 농담이 지나친 감도 있었지만, 다소 소탈한 듯한 모습에 ‘나쁜 사람은 아니구나’라는 생각 정도였어요. 그러던 그의 매력에 흠뻑 빠지게 된 것은 2009년 3월27일 이후였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내가 알던 그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그는 어디서 나왔는지 모를 강력한 카리스마와 지도력을 유감없이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고향 선배로 알려진 어떤 분의 별명처럼 ‘불도저’ 같은 모습에 저는 완전히 꽃혀버렸죠. 그는 소신과 주관이 매우 뚜렷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랫사람에 대한 평가에서도 외부에서 뭐라 왈가왈부하든 신경쓰지 않고 자신의 눈을 믿었습니다. 비록 조직 내에서 신망을 다소 못 받더라도 ‘내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확실히 밀어주는 의리도 있었습니다. 차갑기만 한 경쟁사회에서 이렇게 따뜻한 사람도 있을까요. 이렇게 자신의 꿈을 펼쳐 나가던 그는 큰 사업에

몰두하기 시작합니다. 한국을 넘어 아시아에서 자신이 속한 조직을 우뚝 세우겠다는 원대한 포부를 안고서요. 물론 반대가 있었습니다. 소심하고 미래를 내다볼 줄 모르는 일부 비관주의자들은 그에게 “신중히 나아가야 한다”며 우려를 전달했죠. 그러나 그는 늘 그래 왔듯 자신의 소신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불도저처럼 곳곳이 전진했습니다. 가슴 아프게도 그에게 일생 최대의 시련이 찾아옵니다. 철모르고 머릿속에 빨간 물이나 든 ‘불순 세력’이 그의 앞길을 가로막습니다. 그가 속한 조직을 더 발전시키려면 유신체제라도 벤치마킹할 상황에서 말이죠. 그럼에도 그는 굴하지 않고 “아직 내가 할 일이 남았다”며 조직에 남기를 택했습니다. 그야말로 ‘구사(救社)의 의지’라고밖에 볼 수 없는 감동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뜻밖에도 세를 규합해 계속해서 저항에 나섰습니다. 그가 조직에 대한 무한한 애정을 담아 아무리 호소해도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정종 막걸리 폭탄주’라는 듣도보도 못한 술까지 마셔 가며 조직을 위해 분투했다고 해도 그들은 비웃

었습니다. 께..못난 사람. 차라리 그냥 내려오면 될 것을. 그래도 그는 조직에 자신이 필요하다는 굳은 믿음을 놓지 않고 끝까지 버텼습니다. 그도 사람인지라 때로는 격분하기도 했습니다. 불순세력의 공세는 적잖이 매서웠으니까요. 평소 그가 틈날 때마다 당수를 연마하며 체력을 다졌다는 사실도 그들 덕분에 새로이 알았습니다. 딱지치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다는 가슴아픈 사연도 알게 됐죠. 그는 그렇게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그를 떠나보낼 때가 됐습니다. 그의 ‘고향 형님’과 명운을 같이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이 할 일을 끝냈다고 믿고 표표히 조직을 떠나는지, 깊은 속내를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마지막 순간까지 “나는 잘못하지 않았다”며 고개를 당당히 드는 그의 모습에서 진정한 사내의 향기를 맡을 뿐입니다. 안녕. 박정찬씨.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떠나가셨으면 좋았을 것을